

朱子〈觀書有感〉詩의 韓國的 受容

李 九 義*

〈目 次〉

- | | |
|------------------------|------------------------|
| I. 머리말 | 2. 和·次韻을 통한 形式과 內容 수용 |
| II. <觀書有感>시에 대한 諸家의 解説 | 3. 用事를 통한 語彙의 수용 |
| III. <觀書有感>시의 受容 樣相 | IV. 맺음말 |
| 1. 題目 자체만을 수용한 경우 | |

〈국문초록〉

본고는 주자(朱子) <관서유감(觀書有感)>시가 우리나라 시인들한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한 논문이다. 이 <관서유감>시가 고려 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용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 주리파(主理派)들에 의하여 이 시가 다시 주목받았다. <관서유감> 시의 구절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 처음이다. 이후 **신정모(申正模), 탁계(濯溪) 김상진(金相進), 정조(正祖), 곽종석(郭鍾錫)** 등이 **나름대로 이 시를 풀이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정조와 김상진을 제외하면 모두 경상도(慶尙道) 사람으로 퇴계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다.

<관서유감>시의 수용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서유감'이라는 제목을 수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자의 <관서유감> 시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주자의 시에 화운 또는 차운하

* 韓國, 慶北大學校 漢文學科 教授.

지 않았고 형식도 5언 또는 7언, 절구 또는 율시로 다양하다. 이러한 제목의 시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에 해당하는 시인들은 대부분 영남지방 출신 학자들이다.

둘째 화(和)·차운(次韻)을 통한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의 수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인들은 모두 주자의 <관서유감>시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다. 이들은 모두 영남지방 출신 학자들이며, 퇴계학맥(退溪學脈)을 잇는 주리파(主理派) 학자(學者)들이다. 이는 퇴계(退溪)가 주자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곧 퇴계가 직접 《주자대전》을 완독하였고, 주자의 편지를 추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관서유감> 시를 수용하고 그 맥(脈)을 잇는 사람은 영남지방, 그것도 퇴계학맥과 직결된다. 조선(朝鮮)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또한 남인(南人)을 중시하였기에 퇴계학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 용사(用事)를 통한 <관서유감>시에 나오는 어휘(語彙)를 수용한 경우이다. 조선 시대 시인들이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어휘(語彙)를 빌려 쓴 경우가 대단히 많다. 첫째는 제목을 수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제1수(首)의 어휘를 용사한 경우, 셋째는 제2수(首)의 어휘를 용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시인들이 주자의 시에 나오는 어휘를 수용하고 있다. 특히 16세기 이후의 작품에서 주자의 이 시에 용사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공간의 이름도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시어를 빌려 쓰고 있다. 이는 그만큼 주자의 이 시가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주제어 : 觀書有感, 理學家, 受容, 流行, 生活空間, 意識

I. 머리말

고려 말 주자학이 들어오고부터 우리 선조들은 주자의 저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 15, 16세기에 이 주자학이 무르익어 갔다. 이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위대한 학자들이 많이 나와 주자학이 절정에 이르게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자대전》을 읽었으며, 주자의 작품을 수용하였다. 본고는 우리나라 학자들이 주자의 시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를 그의 <책을 보다가 느낌이 일어(觀書有感)>이라는 시를 통하여 고찰하려 한다. 이 시는 칠언절구 2수이다. 이 두 수의 시는 주자의 <재거감흥(齋居感興)>, <무이도가(武夷權歌)>와 함께 우리선조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다. 특히 <관서유감>시는 주자의 도통시(道通詩)라 할 정도로 형이상학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또 우리나라 학자들도 이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그 연구의 필요성을 느낀다.

본고는 주자의 <관서유감>시가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것을 1차 목표로 한다. 주자의 이 시를 수용한 학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고찰하는 것을 2차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하여 주자의 이 시를 수용한 학자들의 학맥과 그 계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의 진행방법은 동·서양의 비평방법을 망라한 인문주의 비평 방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고의 대본은 《주자대전(朱子大全)》에 실려 있는 <관서유감(觀書有感)>시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 실려 있는 <관서유감>관련 자료이다. 이 밖에 필요에 따라 다른 문헌을 참고하기로 한다.

II. 〈觀書有感〉에 대한 諸家の 解說

본 항에서는 <관서유감>에 대해 기존의 학자들이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를 먼저 고찰하기로 한다. 이에 앞서 주자의 <책을 보고 느낌이 일어(觀書有感)¹⁾>라는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半畝方塘—鑑開
天光雲影共徘徊
問渠那得清如許
爲有源頭活水來

조그만 연못에 거울 하나가 열렸는데,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떠돌아다니네.
어찌하여 그렇게 맑을 수 있는가 물으니,
맑은 물 흘러나오는 근원이 있어서라 하네.

昨夜江邊春水生
鱣衝巨艦—毛輕
向來枉費推移力
此日中流自在行

지난밤 강가에 봄물이 불어나더니,
몽충 같은 큰 전함도 깃털처럼 가볍네.
지금까지 미는 힘 헛되이 써버렸으나,
오늘은 강 가운데로 자유로이 흘러가네.

주자(朱子)가 실제로 철리적인 의미를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른다. 겉으로 보면 이 시는 그저 조그만 연못의 잔잔한 물결에 비친 사물을 보고 느낌이 일어 이 시를 지은 것 같기도 하다. 첫째 수를 보면, 자아가 조그만 연못에 거울 하나 열렸다고 하였다. 거울은 말할 것도 없이 잔잔한 물결이다. 거울 같은 물, 곧 아주 맑은 물결이다. 그곳에 하늘과 구름이 비친다. 어찌하여 물이 이처럼 맑을 수 있느냐고 자아가 다시 자신에게 묻는다. 이에 대한 대답도 자아 자신이 한다. 그것은 원두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기 때문이라고 다시 자아 자신이 대답한다.

둘째 수는 봄이 되자 얼음 녹은 물이 흘러내려 강물이 불었다. 그러자 전함인 몽충(鱣衝) 같이 큰 배들이 가벼이 떠다닌다. 이는 그만

1) 朱熹, 《朱子大全》卷2(大田: 學民文化社 影印本, 2004.9.), 冊2, p.276.

큼 강물이 많다는 말이다. 지금, 곧 겨울동안에는 힘을 헛되이 써 버렸지만, 봄이 되자 불어난 강물 덕에 큰 배가 강 가운데에 자유로이 떠간다.

이처럼 겉으로 보면, 이 두 수의 시는 그냥 물과 속에 비치거나 그 위를 떠다니는 사물을 보고 묘사하였다. 그러나 후대의 학자들은 이 시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물론 중국에서도 주자의 이 시에 의미를 부여한 사람들이 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주자의 제자인 옹화(熊禾: 1247~1312)이다. 옹화는 송(宋)나라 학자로 건양(建陽) 출신이다. 자는 거비(去非), 호가 물헌(勿軒)·퇴재(退齋)이다. 주자의 문인에게서 학문을 배웠으며, 송나라가 망한 뒤에는 무이산(武夷山)으로 들어가 살면서 학문에 종사하였다. 그는 주자의 <관서유감> 시구(詩句)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간략하게 풀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자 가운데 처음 <관서유감>시구를 풀이한 사람은 퇴계 이황이다. 퇴계 학맥을 잇는 경상도 안동 출신인 유도원(柳道源: 1721~1791)이 김근수(金孟厚 坤壽)에게 보낸, <김맹후 관수에게 답함(答金孟厚坤壽)>이라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퇴계언행록(退溪言行錄)》에서 간재(良齋: 李德弘)가 <책을 보다가 느낌이 일어(觀書有感)>라는 절구 시 한 수에 대해서 물으니 퇴계선생이 말하기를, “반묘방당일감개(半畝方塘—鑑開)’는 마음 전체가 담연(湛然)·허명(虛明)한 기상을 말한 것이고, ‘천광운영공배회(天光雲影共徘徊)’는 마음이 고요히 감응하여 외물이 다 비친다는 것을 뜻한다. ‘문거나득청여허(問渠那得清如許)’는 어디서부터 이처럼 허명(虛明)한 체단(體段)이 비롯하였는가를, ‘위유원두활수래(爲有原頭活水來)’는 천명이 본디 그러하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노[퇴계]선생의 해석이 이와 같으니 그대가 ‘마음을 가리키고[지심], 이치를 가리킨다[指理]’하는 것이 퇴계 선생의 가르침에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나 침잠(沈潛)·완색(玩索)하는 공부 없이 명인(名

言)을 표게(標揭)하면 구이지학(口耳之學)으로 돌아갈까 염려스럽다. 이것이 나[유도원]와 그대[김곤수]가 깊이 경계하여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²⁾

유도원은 《퇴계문집고증(退溪文集考證)》을 편찬한 사람이다. 그가 퇴계의 제자인 간재 이덕홍과 퇴계의 문답 내용을 다시 인용하고 있다. 이 내용을 기록한 사람은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이다. 의성(義城) 출신인 이치재(二恥齋) 신정모(申正模: 1691~1742)는 주자의 <관서유감>시 첫 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주자의 <관서유감>시에 이르기를, ...(중략)...라 하였다. 내가 이 시를 볼 때면 반드시 두세 번 크게 읊곤 하였지만, 오히려 ‘관서(觀書)’라는 제목의 뜻을 잘 알지 못하였다. 외우면서 생각하면서 오가며 마음에 둔 것이 몇 년이 지났다. 이제 퇴계선생이 주석(註釋)한 것을 보니, 참으로 팔자 고쳤다고 하겠다. 그가 ‘방당일감(方塘一鑑)’이라 한 것은 잔잔한 물이 흰히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마음이 허령하여 어둡지 않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광영徘徊(光影徘徊)’라 한 것은 연못에 하늘에 뜬 구름이 비치니 만물이 피하지 못하는 것이니, 사람의 마음이 고요히 감응하는 것이 끝이 없어 응용하는 것이 무궁한 것을 말한 것이다. ‘청여허 할수래(淸如許活水來)’는 방당(方塘)이 어찌하여 이와 같이 맑은가 하고 묻고는 원두(源頭)에서 활수(活水)가 내려오기 때문이다[從頭活水源源而來]라고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어찌하면 이와 같이 신명(神明)한가, 그것은 지극한 이치의 원리가 끊임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면, 글 가운데 온갖 사물의 변화가 비록 무궁하다고

2) “退溪言行錄，良齋問觀書一絕。先生曰，半畝方塘一鑑開，言心之全體湛然虛明底氣象。天光雲影共徘徊，言寂而能感，物來畢照之意。問渠那得淸如許，言何由而有此虛明體段。爲有原頭活水來，明天命之本然矣。老先生解釋如此，君所謂指心指理云者，固不悖於溪訓，而但恐無沈潛玩索之工，而卒然以一二字，標揭名言，則徒歸於口耳之學。此吾與君之所當深戒也，如何。”柳道源，〈蘆厓集〉卷4，書，〈答金孟厚 坤壽〉(《韓國文集叢刊》238)，p.183.

하지만, 그 요점은 내 마음에 들어 있는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책을 펴 이치를 훤히 알아 살펴 수용한 것은 역시 그 이치가 마음에 갖추어 있어 허령(虛靈)·명각(明覺)한 체용(體用)이 있기 때문이다. 선생의 주해가 분명한 것이 아마도 친히 가르침을 받아 풀이한 것 같으니, 어찌 후세에 양자운(揚子雲: 揚雄) 같은 사람을 참으로 좋아하지 않게 하겠는가?³⁾

이치재는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과 밀암(密菴) 이재(李裁)와 교분이 있었다. 그와 청대는 상주(尙州) 도남서원(陶南書院)에서 강회를 열기도 하였다. 그는 또 밀암(密菴)과는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⁴⁾ 이를 통하여 볼 때 그 역시 퇴계학맥을 잇는 학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김도인과 김직보(宗敬)에게 답함(答金道彥直甫)>이라는 편지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보인다.

주자의 <관서유감(觀書有感)> 시는 평소에 그대가 보낸 편지의 내용과 같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논한 것은 우매한 제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온갖 이치를 담고 있어 일상

3) “朱夫子觀書有感詩曰, …(中略)… 余於斯篇, 未嘗不三復莊誦, 而猶疑其辭意於觀書之題, 不甚襯著. 且誦且思, 往來於心者有年. 今見退陶李先生註釋, 眞所謂八字打開者矣. 其曰方塘一鑑者, 以止水之虛明洞澈, 譬人心之虛靈不昧也. 其曰光影徘徊者, 以塘之天雲來照, 萬象無逃, 譬心之寂感無邊, 應用不窮也. 其曰清如許活水來者, 設問以爲方塘何如是清澈乎. 以有從頭活水源源而來也, 以譬人心何如許神明乎, 以有降衷至理源源不已耳. 如是看則書中之萬事萬變, 雖曰不窮, 而要皆不外乎吾心所具之理. 吾之所以開卷瞭然, 體察受用者, 亦以其理具於心, 而有虛靈明覺之體用焉爾. 先生註解之明, 殆不啻如親承旨訣而爲之者, 豈不誠後世之子雲也哉.” 申正模, <敬書退溪先生解釋朱夫子觀書有感詩後>, 《二恥齋先生文集》卷3(《韓國文集叢刊》續70, p.368). 그의 아우인 申彥模가 엮은 그의 <年譜>를 보면 이 글은 그의 나이 51세 되던 해 신유년(1641) 7월에 지었다고 되어 있다. (《二恥齋先生文集》卷5 [附錄] <伯兄年譜>).

4) 申正模, 《二恥齋先生文集》卷5, [附錄], <年譜>(《韓國文集叢刊》續70), p.397. 參照.

생활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근본을 찾아보면 본디 태어나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또한 천명(天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사물인데 주고받음에 따라 그 이름을 달리한 것뿐입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는 사물과 같아서 천리(天理)가 항상 여기에 흘러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편지에서 “함양하고 항상 살피는 것을 어디에서 착수할 것인가?”라고 하신 말씀이 매우 합당합니다. 다만 제2구에서 “허명(虛明)한 가운데 온갖 이치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극진하지 못한 듯합니다. ‘방당(方塘)’과 ‘감개(鑑開)’가 이미 ‘허명’과 ‘함구(涵具)’의 체(體)이고, ‘천광(天光)’과 ‘운영(雲影)’이 사물에 응대하는 용(用)이니, 이 두 구절에서 마음의 체와 용의 전체를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2구를 ‘허명하고 함구한 상(象)’이라고만 하면 그 운용하고 유행하는 묘(妙)를 볼 수 없어 마음이 체만 있고 용은 없는 것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⁵⁾

대산(大山)은 갈암(葛菴)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의 외증손(外曾孫)이며 밀암(密菴) 이재(李裁: 1657~1730)의 외손(外孫)으로 퇴계학맥을 잇는 대학자이다. 그가 퇴계의 뒤를 이어 이 <관서유감> 시를 풀이한 것은 그만큼 이 시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의 의미한다. 실제로 대산의 외증조부인 갈암은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의 사위였으며, 경당은 퇴계의 제자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한강(寒岡) 정구(鄭述)에게서 배웠다.

충청도 보은 출신인 탁계(濯溪) 김상진(金相進: 1736~1811)은 <주

5) “朱先生觀書詩意，尋常看得如來論。或人所論，非愚昧所及也。大抵人之一心，涵其萬理，流行發見於日用之間，原其所，固是得於天，故亦謂之天命。然即此一物而以與受而別其名耳。非此心便如空箇物事，而在天之理常常流注于此也。來論所謂涵養顧諟，將何處著手，此語甚當。但第二句言虛明之中涵具衆理，此語恐未盡。蓋方塘鑑開，已是虛明涵具之體。天雲徘徊，乃是事物應酬之用。此兩句說，盡此心體用之全。今以第二句，但謂虛明涵具之象，則無以見其運用流行之妙，而心爲有體而無用矣。未知如何。”李象靖，〈大山集〉卷25(〈韓國文集叢刊〉226)，p.520.

자시차기(朱子詩筭記)>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관서유감> 2수는 모두 비체(比體)이다. ‘반묘방당(半畝方塘)’은 마음을 비유하였고, ‘천광운영(天光雲影)’은 사물이 음에 따라 감응(感應)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활수(活水)’는 천리(天理)를 비유한 것이고, ‘춘수생(春水生)’은 이치가 융화한 것을 비유한 것이고, 몽충(蒙衝)은 마음을 비유한 것이다. ‘왕비추이(枉費推移)’는 억지로 안배하여 파악하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 ‘중류자재행(中流自在行)’은 미발(未發)·이발(已發)과 체용(體用)·본말(本末)이 두루 관통한 것이니 ‘물망물조(勿忘勿助)’나 ‘연비어약(鳶飛魚躍)’과 같은 뜻이다. 대개 배가 물을 만나 떠다니고, 마음이 천리에 따라 순해지며, 격물치지(格物致知)하여 가는 곳이 또한 거리낌이 없어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⁶⁾

탁계는 1755년 생원시에 합격하였으나, 그 뒤 과거 때마다 뜻을 이루지 못하여 과거를 단념하고 계산에 은거하면서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에 심취하였다. 따라서 그가 이 <관서유감> 시를 풀이한 것은 주자의 글에 심취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조선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1752~1800)는, “<관서유감>은 크게는 도체(道體)의 전체를 다하였고, 작계는 이치의 미세한 부분을 다 분석하였다.”⁷⁾고 하였다. 한말 영남의 성리학자인 면우(旼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이 김진옥에게 답한 편지에 다음과 같은 말이

-
- 6) “觀書有感二首皆比也。半畝方塘，諭心也。天光雲影，諭事物之來，隨感隨應也。活水諭天理也。春水生諭理融，蒙衝諭心。枉費推移，諭強安排硬把捉。中流自在行，諭未發已發，體用本末，周流貫徹，與勿忘勿助鳶飛魚躍，同一意思。蓋舟得水而浮，心得理而順，物格知至而行處亦沛然無難也。”金相進，<朱子詩筭記>(《濯溪集》卷5，[雜著]，《韓國文集叢刊》續94)，p.441.
- 7) “觀書有感者，大而極乎道體之全，而細而析夫理窟之微也。”正祖 <雅誦八卷刊本> 《弘齋全書》卷82，[羣書標記四]○御定[四](《韓國文集叢刊》267)，p.539. 《弘齋全書》卷10，<雅誦序>(《韓國文集叢刊》262)，p.163에도 똑같은 말이 들어 있다.

있다.

<관서유감>시에서, ‘빙생함경(水生艦輕)’과 같은 말은 본성이 사욕에 빠진 것을 비유하여 말한 것이다. ‘비력자행(費力自行)’은 극기복례(克己復禮)한 것을 비유한 것이요, ‘춘수생(春水生)’은 함양하는 공부가 지극하여 마음의 근원이 넓고도 넓은 것을 비유한 것이다. ‘함경(艦輕)’은 사물에 응해서 다스림이 많지만 어려운 단서가 없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요, ‘추이(推移)’는 이전에 안배한 조장(助長)의 공에 비유한 것이다. ‘자행(自行)’은 태연히 이치에 따를 뿐이라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⁸⁾

면우(旣宇) 역시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의 뒤를 이은 주리파(主理派)에 속하는 학자이다. 이상 여러 사람의 견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원 문	해 설	비 고
1	李 湜	① 半畝方塘一鑑開 ② 天光雲影共徘徊 ③ 問渠那得清如許 ④ 爲有原頭活水來	① 마음 전체가 담연(湛然)·허명(虛明)한 기상 ② 마음이 고요히 감응하여 외물이 다 비침 ③ 허명(虛明)한 체단(體段)이 비롯한 곳 ④ 천명이 본디 밝음	
2	申正模	① 方塘一鑑 ② 光影徘徊 ③ 清如許 活水來	① 사람의 마음이 허령하여 어둡지 않은 것 ② 마음의 감응과 그 응용이 무궁한 것 ③ 마음이 신명(神明)한 것은 지극한 이치의 원리가 무궁하기 때문	

8) “觀書有感詩，水生艦輕等語，喻此性之汨於欲而言也。費力自行，乃克復之喻耶。春水生，喻涵養工到而心源浩浩也。艦輕，喻應事裁物許多，無難處之端也。推移，是前日安排助長之功也。自行則泰然順理而已矣。” 郭鍾錫，〈答金振玉〉別紙 〈雅誦疑義〉辛丑，〈旣宇先生文集〉卷53(〈韓國文集叢刊〉341)，p.336.

3	金相進	① 半畝方塘 ② 天光雲影 ③ 活水 ④ 春水生 ⑤ 蒙衝 ⑥ 枉費推移 ⑦ 中流自在行	① 마음을 비유 ② 사물이 음에 따라 감응(感應)하는 것을 비유 ③ 천리(天理)를 비유 ④ 이치가 융회한 것을 비유 ⑤ 마음을 비유 ⑥ 억지로 안배하여 파악하는 것을 비유 ⑦ 미발(未發)·이발(已發)과 체용(體用)·본말(本末)이 두루 관통한 것	
4	正 祖	① <觀書有感>	① 크게는 도체(道體)의 전체를 다 하였고, 작게는 이치의 미세한 부분을 다 분석	
5	郭鍾錫	① 水生艦輕 ② 費力自行 ③ 春水生 ④ 艦輕 ⑤ 推移 ⑥ 自行	① 본성이 사욕에 빠진 것을 비유 ② 극기복례(克己復禮)한 것을 비유 ③ 함양하는 공부가 지극하여 마음의 근원이 넓고도 넓은 것을 비유 ④ 사물에 응해서 다스림이 많지만 어려운 단서가 없다는 것을 비유 ⑤ 이전에 안배한 조장(助長)의 공에 비유 ⑥ 태연히 이치에 따를 뿐이라는 것을 비유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퇴계(退溪)의 문집(文集)을 고증(考證)한 유도원(柳道源: 1721~1791)이 퇴계의 <관서유감>에 대한 구절의 풀이를 소개하고 있다. 곧 이 <관서유감> 시구를 처음 풀이한 사람은 바로 퇴계 이황이다. 이후 이치재(二恥齋) 신정모(申正模: 1691~1742), 탁계(濯溪) 김상진(金相進: 1736~1811), 조선(朝鮮)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1752~1800, 재위 1776~1800), 먼우(俛宇) 곽종석(郭鍾錫: 1846~1919) 등이 나뉘대로 이 시를 풀이하고 있다. 이들을 보면 정조와 김상진을 제외하면 모두 경상도(慶尙道) 사람으로 퇴계의 영향을

받은 주리파(主理派) 학자들이다. 김상진이 비록 영남 출신이 아니지만 주자학에 몰두한 나머지 주자의 이 시에 대하여 그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Ⅲ. 〈觀書有感〉의 受容 樣相

1. 題目 자체만을 수용한 경우

이 경우는 대부분 주자의 <관서유감>시와는 거리가 멀다. 곧 주자의 시에 화차운하지 않았고, 그 형식도 5언 또는 7언, 절구 또는 율시로 다양하다. 제목이 같은 경우는 16C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작품은 물암(勿巖) 김룡(金隆: 1549~1593)의 <관서유감⁹⁾>인데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尋源十載愧迷津
只見皮毛不見眞
欲覺未能長在夢
幾時當作向陽人

십 년 동안 원두를 찾았지만 아직 혼미해,
가죽과 털만 보았지 참모습을 보지 못했네.
깨어나고 싶지만 긴 꿈에서 깨지 못하니,
어느 날에 양을 향하는 사람이 되리오.

기구(起句)에서 자아¹⁰⁾는 1년 동안 원두(源頭)를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혼미하다고 하였다. 진리를 탐구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그 원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승구(承句)의 겉모습만 보았지 그 내면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일치한다. 아직은 자아와 책이 서로 교감하지 않고 있다. 곧 책은 책대로 나는 나대로[書自書, 我自我]이다.

9) 金隆, 《勿巖先生文集》卷1(《韓國文集叢刊》38), p.498.

10) 여기서의 自我는 抒情的自我(Persona)를 가리킨다. 以下도 이와 같다.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수준이 상당히 높다. 수준이 낮은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줄도 모른다. 따라서 자아의 학문 수준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구(轉句)에서 자아는 긴 꿈에서 깨어나고 싶지만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의 꿈은 희망이 아니라 무지(無知) 또는 몽매(蒙昧)한 상태를 말한다. 현재 자아가 무지하지만 언젠가는 이 몽매함을 벗어날 날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희망이 결국에 나타난다. 양(陽)을 향하는 사람은 임금의 인정을 받기바라는 사람일 수도 있으나, 여기서의 진리를 터득한 사람 곧 대학자를 가리킨다. 자아는 이 시를 통하여 자신이 우주만물의 이치를 터득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간이(簡易) 최립(崔攄: 1539~1612)의 <관서유감¹¹⁾>이다.

大將纔當召小兒 經邦誰自傳巖離 未令主上聞誠竟 空奈先生誦出師 子孝必期勞底豫 醫忠寧畫病難爲 天公默默遲人事 莫謂天公悔禍遲	대장이 이제 막 어린아이를 부르나니, 경방(經邦)에서 그 누가 암리 전할꼬. 주상께서 성경을 듣게 하지는 마시오, 부질없이 선생이 출사표를 외우리오. 자식 효도하니 반드시 미래 예측하리, 의원 충성 차라리 병 고치기 어렵다네. 천공(天公)이 말없이 인사를 미루나니, 천공이 잘못을 후회할 날 더디다 마오.
--	---

간이(簡易)는 빈한한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타고난 재질을 발휘하여 1555년(명종 10) 17세의 나이로 진사가 되었다. 그는 1559년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여러 외직을 지낸 뒤에 1577년(선조 10)과 1581년(선조 14)·1593년(선조 26)에는 주청사(奏請使)의 질정관(質正官)으로, 1594년(선조 27)에는 주청부사(奏請副使)가 되어 명나라에

11) 최攄, 《簡易文集》卷6, [癸巳行錄] (《韓國文集叢刊》49), p.418.

다녀왔다. 간이(簡易)가 이 시를 언제 지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중국의 사신 또는 관리를 만나서 지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자아는 중국 또는 중국의 사신을 대장(大將)·경방(經邦)·천공(天公)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는 자신을 어린아이[小兒]·암리(巖離)등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자아는 상대방을 높이는 척하면서도 심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미연(尾聯)에 나타난다. 천공(天公), 중국 사신 또는 관리가 이유 없이 인사를 미루는 것을 보고 자아는 인사를 미루면 앞으로 후회할 일이 있을 것이라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함계(涵溪) 정석달(鄭碩達: 1660~1720)도 같은 제목의 시¹²⁾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大人曾次似青天
一念差來便不賢
陋巷春風顏有樂
水壺秋月李無愆
百年富貴何須願
萬卷詩書眞可傳
莫問紛紛庵外事
此心常在此中全

대인의 흉금이 저 푸른 하늘과 같으니,
한 생각이라도 어긋나면 현인이 아니네.
누항에 봄바람 불면 안자의 즐거움 있고,
빙호추월 같은 이연평(李延平) 모습이네.
한평생 부귀영화(富貴榮華) 어찌 바라리,
만 권의 시서(詩書)를 참으로 전할지라.
자질구레하게 이 밖의 일일랑 묻지 마오,
내 마음은 언제나 이 속에서 온전하다오.

함계(涵溪)는 본관이 영일(迎日)로 칠곡부(柒谷府) 고평리(高平里) 외가(外家)에서 출생하였으며, 처가는 안동 권(權)씨 집안이다. 위의 시에서 자아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대인(大人)·현인(賢人)·안빈낙도(安貧樂道)·빙호추월(氷壺秋月)·시서(詩書) 등이 그것이다. 대인과 현인은 훌륭한 사람이다. 안빈낙도와 빙호추월은 각각 공자의 제자인 안연(顏淵)과 주자의 스승인 이동(李侗)의 사람 또는 모습을 가

12) 鄭碩達, 《涵溪先生文集》卷1(《韓國文集叢刊》續53), p.227.

리킨다. 따라서 자아가 말한 대인과 현인은 안연과 이연평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안빈낙도¹³⁾는 누구나 다 아는 고사이다.

빙호추월(氷壺秋月)은 남송(南宋)의 학자인 등적(鄧迪)이 주송(朱松)에게 주자(朱子)의 스승인 연평(延平) 이동(李侗)의 인품을 말하면서 “원중(願中: 이동의 자)은 마치 빙호추월(氷壺秋月)과 같아 티 없이 맑고 깨끗하니 우리들이 미칠 수 없다.”¹⁴⁾ 하였다. 빙호추월은 얼음으로 된 호로병에 맑은 가을 달이 담겼다는 뜻이다. 주송은 연평(延平) 이동(李侗)의 동문으로 당시 이부원외랑(吏部員外郎)이었다.

자아가 추구하고자 한 것이 바로 안자와 이연평의 삶과 모습이었다. 이는 마음이 검소하면서 생각이 바른 선비의 삶을 자아가 지향하고 있다는 말이다. 경상도 상주(尙州: 現 聞慶) 출신인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도 역시 같은 제목의 시 두 수를 지었는데 첫 번째 시¹⁵⁾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眞意味從咀嚙出	참된 뜻은 곱씹는 데서 나오고,
好消息自苦辛來	좋은 소식은 고생한 끝에 오네.
不消編簡遮雙眼	책에다 두 눈을 대고 있으면서,
正好沉潛閱百回	그 뜻 되새기며 백 번 읽었다네.

이 시에서의 자아도 자신이 선비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선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진리추구이다. 기구(起句)에서 자아는 참된 뜻은 곱씹는 데서 나온다고 하였다. 생이지지(生而知之)·학이지지(學而知之)가 아니라 곤이지지(困而知之)이다. 자아가 책을 펴서 그의 시선을 그곳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으며 그 뜻을 새기

13) “子曰，賢哉回也。一簞食，一瓢飲，在陋巷，人不堪其憂，回也不改其樂，賢哉回也。”《論語》卷6, <雍也>篇.

14) “鄧迪嘗謂松曰，願中如氷壺秋月，瑩澈無瑕，非吾曹所及。”《宋史》卷428, <李侗列傳>.

15) 權相一, 《淸臺先生文集》卷3(《韓國文集叢刊》續61), p.258.

고 있다. 이 시에서는 자아의 학문, 곧 진리추구에 대한 성실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누구나 처음 한 두 번은 잘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그 마음을 한 곳에 두기란 참으로 어렵다. 자아가 학문 연마에 그 뜻을 두고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자아의 무항산(無恒産)이라도 유항심(有恒心)하는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다. 청대(淸臺)의 두 번째 시¹⁶⁾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陸王元一般	육왕(陸王)은 본디 한 줄기인데,
染得曹溪水	조계수의 물에 물들어 버렸다네.
眞僞眩難分	진위 어지러워 분간하기 어렵고,
是非混無異	시비가 뒤섞여 차이가 나지 않네.
襄襄漸吾東	노장의 회양 우리나라에 들어오니,
平陸波浪起	평평한 육지에 물결이 일어나네.
須將大本源	마땅히 큰 본원(本源)이란 말 들어,
窮透兩箇字	이 두 글자 깊이 연구해야 하네.

수연(首聯)의 육왕(陸王)은 송나라 육구연(陸九淵)과 명나라 왕수인(王守仁)을 말한다. 송(宋) 나라의 육구연(陸九淵)이 살던 곳이 금계이고, 명(明) 나라의 왕수인(王守仁)이 살던 곳이 여요(餘姚)다. 여기서는 육구연과 왕수인, 즉 주자학(朱子學)과 대립하였던 육왕학(陸王學)을 가리킨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자아가 생존할 당시 주자학과 아울러 육왕학(陸王學)이 도입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대구(對句)의 조계수(曹溪水)는 당나라 한유(韓愈)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한유가 조주 자사(潮州刺史)로 가서 형산(衡山) 조계(曹溪)에 태전(太顛)이란 높은 중이 있다는 말을 듣고 기생 홍련(紅蓮)을 보내어 유혹하게 하였다. 그러자 태전은 홍련의 치마에다 시를 써 주기를, “어찌 한 움큼 조계의 물을 가지고서 붉은 연꽃의 잎에 떨어뜨려 적

16) 權相一, 《淸臺先生文集》卷3(《韓國文集叢刊》續61), p.263.

시라.[肯將一勺曹溪水 滴向紅蓮連葉中]” 하였다. 한유의 고사에 나오는 태진 스님은 아름다운 여인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선비들은 당시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지목받았던 육왕학(陸王學)에 넘어가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회양(裋囊) 곧 노장(老莊) 사상에 쏠리기도 한다. 마치 평지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 같이 다양한 종파가 세상을 어지럽힌다. 따라서 자아는 본원(本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주장은 말할 것도 없이 위로는 공맹학(孔孟學)이요, 아래로는 정주학(程朱學)이다. 이 시를 통하여 우리는 청대(淸臺)가 지향하고자하는 학문 세계를 알 수 있다. 그의 학문은 정주학이요 성리학이었다. 영조와 정조대에 걸쳐 살다간 노우(魯宇) 정충필(鄭忠弼: 1725~1789)이 <오래도록 시묘 살이 하면서 책을 보다가 느낌이 일어(久寓墳菴, 觀書有感)¹⁷⁾>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草屋深深松檟叢	나무 우거진 깊은 골에 움막을 지어서,
僑居三月護緇同	석 달 동안 지내니 무사(婺舍)와 같다네.
回心忽向明明路	마음이 갑자기 명명로(明明路)로 향하니,
密邇先靈似誘衷	가까운 선령들 속마음 인도하는 것 같네.

그의 어릴 때 이름은 흥필(興弼), 자가 창백(昌伯), 뒤에 자를 백경(伯敬)으로 고쳤다. 그의 호는 노우(魯宇), 본관이 영일(迎日)이다. 1747년(영조 23)에 두역(痘疫)이 창궐하자 아버지 정욱(鄭煜)을 따라 경주(慶州)에서 영양(英陽) 입암(立巖)으로 옮긴 후, 그 곳에서 최흥벽(崔興璧: ?~?)과 이상정(李象靖: 1711~1781)에게 글을 배웠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위 시는 자아가 시묘(侍墓)살이 하면서 책을 보다가 느낌이 일어나 지은 것이다. 자아 나무 우거진 깊은 골에

17) 鄭忠弼, 《魯宇文集》卷2(《韓國文集叢刊》續89), p.172.

움막을 지어 석 달 동안 그곳에서 지내니 그의 모습이 마치 무사(婺舍)와 같다고 하였다. 기구와 승구에서는 자아의 걸모습을 묘사하였다. 걸모습이 비록 궤궤하하하 그지없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 그의 내면이 전구(轉句)와 결구(結句)에 나타난다. 마음이 갑자기 밝고 밝은 길로 향한다고 하였다. 마음이 티 없이 맑다는 말이다. 이는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한 거울이 열리는 것[—鑑開]과 같다. 이처럼 자아의 청정무구한 마음이 선현들과 일치한다. 여기서 선현은 자아보다 앞선 선학(先學)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주자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다. 이 시는 청정심(淸淨心)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의 시와 일치한다.

북경(北京)을 드나들기도 하였던 연파(蓮坡) 김진수(金進洙: 1797~1865)도 <관서유감¹⁸⁾>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羲和鞭六龍	희화(羲和)가 육룡을 채찍질하여,
不爲我遲延	나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았다네.
智愚生斯世	잘나고 못한 사람 이 세상에서,
同此數十年	함께 살아온 지 수십 년 되었네.
或以忠孝死	어떤 이 충효(忠孝)하면서 죽어,
大節炳簡編	위대한 절개 역사에 실려 있다네.
或以安樂死	어떤 이는 편안히 즐기다 죽으니,
民無可稱賢	그를 어질다 칭찬하는 백성 없네.
死而無可稱	죽어서 칭찬할만한 일이 없다면,
雖生亦徒然	비록 살아있든들 부질없는 일이네.
死而有可稱	죽고 난 뒤 칭찬받을 일 있다면,
雖死不死焉	비록 죽어도 죽지 않은 것이라네.
撫躬自循省	몸 쓰다듬으며 스스로 반성하노니,
何者足留傳	무엇이 남겨 전할 만 한 것인고.
宇內皆吾事	우주 안이 모두가 내 일이라는,

18) 金進洙, 《蓮坡詩鈔》卷下(《韓國文集叢刊》306), p.252.

三復陸九淵 육구연의 말을 거듭 곱씹어 보네.

제목은 <관서유감>이나 주자의 <관서유감>의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자아가 본 책은 《주자대전》이 아니라 역사서이다. 서(書)는 사(史)와 통한다. 중국의 25사(史)를 보아도 송나라 역사서인 《송사(宋史)》이전에는 모두 사(史) 대신 서(書) 자를 붙였다. 예를 들면 《구당서(舊唐書)》·《신당서(新唐書)》와 같은 것이다.

자아가 역사를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였다.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 충효를 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일생을 편안하게 즐기다 죽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한다. 그것은 남에게 무엇을 베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드물다.

따라서 자아가 일생동안 후손들에게 무엇을 전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 본다. 그 해답은 이미 나왔다. 바로 충효이다. 이것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같이 지켜야 할 덕목(德目)이다. ‘우주 안이 모두 나의 일[宇內皆吾事]’이라는 상산(象山) 육구연(陸九淵)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된다. 숙재(肅齋) 조병덕(趙秉德: 1800~1870)이 <창문을 닫고 책을 읽다가 느낌이 일어(掩牕觀書有感)¹⁹⁾>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山林隱遯跡	산림에 은거해 자취 묻어 두고,
淡淡絕塵埃	담담히 세속의 욕심 끊었다네.
引睡憑書卷	책을 베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消憂賴酒杯	술잔을 들어서 시름을 달래네.
夕氣時撼竹	저녁 바람에 대나무 흔들리고,
春雨日催梅	봄비에 하루 달리 매화꽃 피네.
頽臥松牕下	술 창가에 물러나 누워 있으니,

19) 趙秉德, 《肅齋集》卷1(《韓國文集叢刊》311), p.9.

剛腸自九回 애간장 저절로 아홉 번 뒤틀리네.

조병덕(1800~1870)의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유문(孺文), 호는 숙재(肅齋). 동지증추부사 조순(趙淳)의 아들이다. 일찍이 홍직필(洪直弼)과 오희상(吳熙常)의 문하를 출입하며 학문을 닦았다. 1852년(철종 3) 음보(蔭補)로 지평이 되고, 1859년 경연관이 되었다. 이어 이조참의를 거쳐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동문의 임헌회(任憲晦) 등과 병칭되던 한말의 거유였으며, 성리학자로도 이름이 높았다. 그는 이재(李紱)·김원행(金元行)으로 이어지는 학맥을 홍직필로부터 이어받아 문하의 김병창(金炳昌) 등에게 전수하였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한적한 시골에서 담담히 생활하면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욕심 없는 선비의 고결한 기풍이 이 시에 나타난다. 먼저 수연(首聯)을 보면, 자아가 시골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세속에 물든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는다. 이때의 자아의 마음은 욕심이 없다. 함련(頷聯)에 가면, 자아가 그 한적함을 달래기 위하여 책을 베고 잠을 청한다. 책은 선비가 가장 아끼는 물건이다. 일반인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자아가 책을 읽다가 무료하여 그 읽던 책을 베고 잠을 청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아가 선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고, 술을 마신다는 것은 자신이 풍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련(頸聯)에 가면, 저녁 바람에 대나무 흔들리고 봄비에 하루 달리 매화꽃 핀다고 하였다. 시간 배경은 이른 봄 어느 날 저녁 무렵이다. 저녁은 하루가 저물어가는 때이다. 이 때 자아의 심정은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다. 그런데 대나무가 봄바람을 맞아 흔들린다. 대나무는 선비의 절개를 뜻한다. 출구(出句)에서 보면, 자아 자신이 세파(世派)에 흔들리고 있다. 이 세파도 자아의 굳은 절개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대구(對句)에 가면, 자아의 심정이 희망적이다. 긴 겨울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는 봄비가 내렸다. 날씨가 따뜻해지자 매화가 피기 시작한다. 이 매화 선비가 좋아하는 꽃 가운데 하나이다. 이 매화는 곳곳한

지조나 절개를 나타낸다. 아취고절(雅趣高節)이다.

미연(尾聯)에 가면, 자아는 소나무 창가에 물러나 누웠으니 강직한 마음이 저절로 아홉 번이나 뒤틀린다고 하였다. 이로 미루어 보면, 자아가 비록 자연 속에 묻혀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세속에 미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음속에 동요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마음속에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리가 없다.

‘관서유감’이라는 제목을 수용한 경우는 주자의 <관서유감>시와는 그 형식과 내용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이들 시는 주자의 시에 화운 또는 차운하지 않았고 형식도 5언 또는 7언, 절구 또는 율시로 다양하다. 이러한 제목의 시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곧 물암(勿巖) 김릉(金隆: 1549~1593), 함계(涵溪) 정석달(鄭碩達: 1660~1720),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 노우(魯宇) 정충필(鄭忠弼: 1725~1789), 연파(蓮坡) 김진수(金進洙: 1797~1865), 숙재(肅齋) 조병덕(趙秉德: 1800~1870)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영남지방 출신 학자들이다.

<관서유감>시를 지은 시인들은 주자학이 한창 유행하였던 16세기 이후의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지은 시의 내용이 주자의 <관서유감>시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면에서는 <관서유감>시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이들 시 모두 교훈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공자 이후로 유가들의 시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교훈적이다. 둘째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시를 지은 시인들은 책을 통하여 진리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물암(勿巖)의 시에서 주자의 시와 같이 원두(源頭)를 찾고자 한 점에서 일치한다.

2. 和·次韻을 통한 形式과 內容의 수용

양직(養直) 도성유(都聖兪: 1571~1649)가 <회암의 시를 읽다가 삼

가 관서유감 시에 차운함(讀晦菴詩,敬次觀書有感)²⁰⁾>라는 제목의 시 두 수를 지었는데 첫 번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盥讀遺詩意便開	손 씻고 남기신 시 읽으니 뜻이 문득 열려,
幽筵當日宛徘徊	스승님께 글 배울 때 허리 굽혀 오갔다네.
淸宵試向林塘月	달 밝은 밤 숲속 방당(方塘)으로 걸음 옮겨,
恬淡無風鏡面來	담담히 바람 없는 거울 같은 물가로 왔네.

자아가 손을 씻고 주자가 남긴 시를 읽는다고 하였다. 이는 자아가 주자에 대해 대단히 공경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자아가 또 그의 스승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여기서의 글은 바로 주자의 글을 말한다. 그 안에 이 <관서유감>이라는 시도 포함되어 있다.

전구(轉句)와 결구에 가면 자아가 주자의 시의 의미를 십분 살리고 있다. 달 밝은 밤에 자아가 반듯한 연못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그것도 날씨가 맑은 밤 숲속에 있는 연못이다. 숲속은 낮에도 조용하니 밤에는 더욱 더 고요하다. 고요한 밤에 밝은 달이 떠 거울 같은 연못에 비친다. 달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얼굴도 비친다. 자아가 자신이 비친 물을 보면서 생각에 잠긴다. 이 역시 자아가 자연 현상을 감상하면서 자신이 동화하고 있다. 두 번째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慣住湖邊老我生	호수 가에서 살고 있는 늙은 이 몸이,
風波幾處小舟輕	어느 곳에서 바람이니 돛단배 가벼워.
春來日漲桃花浪	봄이 오니 해 길어 복사꽃 만발한데,
爲揭孤蓬任自行	조그만 배를 매어놓고 어슬렁거린다네.

자아는 먼저 호숫가에 살고 있다고 하였다. 그 자신이 늙은 몸이라 하였으니, 청년이나 장년이 아니다. 늙은이가 호수에 있는 배를 타고

20) 都聖俞, 《養直先生文集》卷1(《韓國文集叢刊》續17), p.56.

가고 있다. 물론 자신이 노를 짓는 것은 아니다. 자아가 봄이 와서 복사꽃이 만발하다고 하였다. 자아 자신이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 한창이다. 복사꽃은 분홍색이다. 푸른색은 봄을, 붉은 색은 여름을 의미한다. 분홍색은 붉은 계통이지만 봄을 의미한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복사꽃 봄에 피기 때문이다. 봄은 신생(新生), 희망, 발전, 개방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의 마음도 늙지 않아 희망적이다. 이러한 때 호숫가에 배를 매어놓고 이 자연의 변화를 감상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교감을 묘사하고 있다.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1679~1759)이 <우연히 주자의 몇 수의 시를 보다가 감동하여 각각의 시에 차운함(偶閱朱子諸詩 感次各韻)²¹⁾>이라는 제목 밑에 4수의 시를 지었는데, 그 가운데 <관서유감>시에 차운한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天理洋洋浩氣生	천리는 넓고 넓어 호기가 생기나니,
向來人欲十分輕	지난날의 인욕이 십분 가벼워지네.
須看春水漲新綠	봄 강물 불어 새싹이 돋는 것 보라,
不用輕檣舟自行	노를 짓지 않아도 배 저절로 떠가네.

청대(淸臺)는 자가 태중(台仲), 호는 청대(淸臺) 본관이 안동(安東)이다. 상주[현, 聞慶市 山北面]의 근암리(近菴里)에서 태어났다. 학문을 일찍 깨우쳐 20세에 옛사람들의 독서하는 법과 수신하는 방법을 모아 <학지록(學知錄)>을 엮었다.

먼저 기구(起句)를 보면, 천리가 넓고 넓어 호기가 생긴다고 하였다. 천리는 자연의 이치이다. 자연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이치가 넓고 넓어 무엇이든 다 포용한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사람의 마음도 넓어진다. 곧 호연지기(浩然之氣)

21) 권상일, 《淸臺先生文集》卷4(《韓國文集叢刊》續61), p.274. 淸臺가 次韻한 朱子의 시는, <古鏡重磨>·<觀書有感>·<水口行舟>·<敬義齋> 등이다.

가 생긴다. 드넓은 천리에 따라 호연지기가 생기니 지난날의 인욕(人慾)이 없어진다. 인욕이 없어지니 마음이 가볍다.

봄이 되자 얼음과 눈이 녹아 물이 불어났다. 날씨가 따뜻하니 새싹이 돋아난다. 이러한 현상은 누가 시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자아 역시 강물에 배를 띄워 타고 있다. 자아가 탄 배도 인위적으로 노를 젓지 않아도 저절로 떠간다. 이는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다. 곧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정신이 이 시 속에 녹아 있다.

경상도 안동 출신인 노에(蘆厓) 유도원(柳道源: 1721~1791)이 <삼가 주자의 관서유감 시에 차운하여 여강강회에 올림(敬次朱夫子觀書有感詩 奉呈蘆江講會)²²⁾>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그가 시를 짓게 된 연유를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을유년(1765) 강회(講會)할 때 대산 선생과 여러 사람들이 오로봉(五老峯) 아래에서 배를 타고 뱃놀이를 하였다. 배에 탄 사람들이 주자의 <관서유감>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는데 지금도 좋았던 일로 생각한다. 지금 여러 분들이 또 강회를 열어서 지난번에 한 것 같이 하려고 하는데, 때는 기유년(1789) 7월 16일이었다. 내가 몸이 아파 그곳에 참석하지 못 하였지만, 여러 분들이 또 주자의 <관서유감>시에 차운하여 시를 짓고, 나에게 글을 보내 화답 시를 지어 시축(詩軸) 가운데 넣어 함께 하지 못한 안타까움을 위로하자고 하였다. 그 뜻을 저버릴 수 없어 어렵사리 시를 지어 드리니 여러 분들이 모인자리에 한번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²³⁾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과 그 제자들이 두 차례 뱃놀이를 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것이 주자의 <관서유감> 시

22) 柳道源, 《蘆厓集》卷2(《韓國文集叢刊》238), p.154.

23) “乙酉講會時, 大山李先生與諸名勝, 泛舟於五老峯下, 舟中次朱先生觀書有感詩, 至今傳以爲勝事. 今諸公又設講會, 以續古事, 時己酉秋七月既望也. 余病不能赴, 諸公又次觀書韻, 走書求和, 要置之軸中, 以慰不能同遊之恨. 其意不可孤負, 艱草奉呈, 以博會中一笑.” 柳道源, 위의 책, 같은 곳.

였다. 그들의 모임의 이름이 여강강회(廬江講會)였다. 노애(蘆厓)가 처음에는 그 자리에 참석하였지만 두 번째는 자신의 몸이 아파 그곳에 가지 못하였다. 그 시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들의 시에 화답하여 시를 지어줄 것을 부탁하자 노애가 이 시를 지었다. 이를 보면 당시 주자의 <관서유감>시가 선비들 사이에서 많이 읽혔고, 또 이에 화·차운하여 시를 많이 지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애가 지은 시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大山當日倡諸生	대산 살아계실 때 여러 학생 가르치셨으니,
講罷登船一葉輕	강의 마치고 배를 타니 나뭇잎처럼 가벼워.
妙處由來惟獨得	어디서 왔는지 오직 혼자만이 깨달았으니,
恍然舟入落星行	홀연히 배가 지는 별 안으로 드는 것 같아.

기구(起句)와 승구(承句)를 보면, 대산(大山)이 제자들을 많이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그가 지금 살아있지 않다. 을유년(1765) 유선놀이를 할 때는 그의 스승인 대산과 함께 하였지만, 기유년(1789) 유선놀이에서는 대산이 세상을 떠난 뒤였다. 물론 자아도 몸이 아파 그 놀이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자아의 스승인 대산의 강의를 듣고 유선놀이 할 때는 몸이 가벼웠다. 강의를 듣고 난 뒤의 휴식의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이 가볍지 못하다. 자아 자신의 몸이 아프고 그 스승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 준 대산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온다. 어쩌면 이 구절에서는 주자의 <관서유감> 두 번째 시의 승구 ‘몽충 같은 큰 전함도 깃털처럼 가볍네 [艤衝巨艦一毛輕]’와 서로 맥이 통한다.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를 보면, 어디서 왔는지 오직 자아 자신만이 깨닫는다. 곧 자연을 통하여 진리를 터득하였다는 말이다. 주자의 제자인 옹화(熊禾)가 주자의 두 번째 시에 주(注)를 달기를 “의리가 무르익었을 때 치지(致知)가 저절로 지극하여진다[熊禾曰, 義理熟時,

知自致而自然好.”고 하였다. 곧 자아가 의리에 무르익어 스스로 치지(致知)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니 밤에 뱃놀이를 하며 강위를 떠가는 배가 지은 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곧 자연과 인간의 교감이다.

조선 22대 왕인 정조(正祖: 1572~1800, 在位 1776~1800)가 <삼가 주자의 시에 화운함(謹和朱夫子詩)>²⁴⁾이라는 시 8수를 지었다. 그 가운데 <관서유감> 두 수 가운데 뒤의 시에 화운(和韻)한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庭前竹樹太疑生	뜰 앞의 대나무에 큰 의심이 생기나니,
一羽輿薪孰重輕	깃털과 수레의 짐 어느 것이 무거운가.
道不遠人人自遠	도 멀지 않으나 사람들이 도를 멀리해,
回頭是岸岸頭行	고개 돌리면 언덕, 언덕 위로 다니면서.

자아는 뜰 앞에 자라고 있는 대나무를 보고 큰 의심이 생겼다고 하였다. 단지 나무일뿐인데 왜 의심이 생겼을까? 그것은 대나무가 여느 나무들과는 그 성질이 다른 데에 있다. 첫째 대나무는 곧다. 둘째 가운데가 비어 있다. 셋째 다른 나무에 비하여 줄기에 가지가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 대나무의 성질은 송나라 때 주돈이(周敦頤)가 말한 연꽃의 모습과 비슷하다. 곧 중통외직(中通外直), 불만부지(不蔓不枝)가 그것이다. 예부터 대나무는 충절, 지조를 상징하기도 하였다. ‘대쪽 같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성질이 곧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킨다. 대나무가 다른 점은 마디가 있다는 점이다. 마디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일의 고비를 뜻한다. 학문도 단계가 있다. 이것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다.

승구(承句)에 가면, 자아는 깃털과 쇠이 어느 것이 더 무거운가 하고 반문한다. 물론 쇠이 더 무겁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이 생각하기

24) 正祖, 《弘齋全書》卷7, <謹和朱夫子詩>八首(《韓國文集叢刊》262), p.122. 주자의 여덟 수의 시는, <春日>·<觀書有感>·<寄胡籍溪>·<武夷權歌> 第四曲·<入瑞巖道間>·<壽母生朝>·<蔡氏婦家>·<石廩峯> 등이다.

나름이다. 사람이 고민이 없을 때는 마음도 몸도 가볍지만, 고민이 있을 때는 이 두 가지 모두 무겁다.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정신적인 무게가 어떤가를 생각해봐야 한다. 깃털이나 쇠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전구(轉句)에 가면 자아는 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도를 멀리하고 있다고 한다. 이 구절은 《중용》의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도를 닦으면서 사람을 멀리하면 도를 닦을 수 없다.”²⁵⁾라는 구절을 조금 바꾼 것이다. 도가 사람 가까이 있다. 《주역》에서는 “한 번 음이 되고 한 번 양이 되는 것을 도라 한다.”²⁶⁾ 하였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다시 낮이 온다. 이것이 도인데도 사람들은 도가 멀리 있다고만 생각한다. 결국에서, 자아는 사람들이 머리를 돌려 언덕을 보고 그 언덕길을 가면서도 언덕의 실체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였다. 이는 《시경》의 도끼자루를 잡고 도끼자루를 다듬으면서 그 도끼자루의 본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과 같다. 이처럼 정조(正祖)는 주자의 <관서유감>시에 화운(和韻)하여 도의 실체가 어디에 있는가를 묘사하였다. 이 시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인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경상도(慶尙道) 성주(星州) 한개[大浦] 출신인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이 <주자 관서유감 시에 차운함(次朱子觀書有感)²⁷⁾>이라는 칠언절구 시 두 수를 지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萬壘雲山一路開	첩첩이 구름 낀 산에 한 길이 열리나니,
碧桃花下鶴徘徊	벽도화(碧桃花) 떨어지고 학이 배회하네.
清溪曲曲多奇絕	맑은 시내 굽이마다 기이한 곳이 많나니,
正是遊人向上來	바로 유인(遊人)들이 올라왔기 때문이네.

25) “道不遠人，人之爲道而遠人，不可以爲道。” 《中庸章句》第13章.

26) “一陰一陽謂之道。” 《周易傳義》卷22, <繫辭上傳>第5章.

27) 李震相, 《寒洲先生文集》卷3(《韓國文集叢刊》317, p.80).

자아가 먼저 첩첩이 구름 낀 산에 한 길이 열린다고 하였다. 구름 낀 산은 어둡다. 이는 정신이 맑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로 좁은 길이 나 있다. 이는 도(道)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다. 도가 열리니 벽도화가 떨어지고 학이 배회하는 것 같이 자아의 마음이 한가롭다. 벽도화와 학은 선비의 고결함을 나타낸다.

전구(轉句)에 가면, 자아는 맑은 시냇물 굽이 마다 기이한 곳이 많다고 하였다. 시냇물이 맑다는 것은 자아의 정신이 맑다는 것이다. 그것은 주자가 말하였듯이 활수(活水)가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의식이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신이 살아 있다는 말이다. 그는 또 시냇물 굽이마다 기이한 곳이 많다고 하였다. 기이한 곳은 신선이 사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진리의 장이다. 바로 도를 터득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다.

결구(結句)에서 자아는 기이한 곳이 많은 것은 바로 유인(遊人)들이 올라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유인향상래(遊人向上來)’는 주자의 <무이도가> 제8곡 시에 나오는 구절 ‘유인불상래(遊人不上來)’에서 따왔다. 이에 대해 고봉 기대승은, “8곡시에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 없다 하지 마오. 원래 유인들이 올라오지 않아서라오.[莫言此處無佳景, 自是遊人不上來].’라고 한 것은 비록 뛰어나고 기이한 구경거리는 없지만 한 번 찾아볼 만한 깊은 골짜기의 좋은 경치가 없지가 않다. 만약 유자(遊者)들이 조용히 탐구한다면 반드시 맛이 없는 가운데 맛이 있을 것임을 말한 것으로 뜻이 없는 것이 아닐 듯합니다.²⁸⁾”라고 하였다. 주자(朱子)는 유인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였지만, 자아는 유인이 올라왔다고 하였다. 아름다운 곳이 많았기에 유인들이 올라왔다. 이것이 자아와 주자가 다른 점이다. 한주(寒洲)의 두 번째 시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一 衡能制百欺生 저울대 하나가 온갖 속임수를 다스리나니,

28) 奇大升, 《高峯集》卷1, <兩先生往復書>1.

鍾物平時判重輕
斤銖素定難容力
體正寧憂用不行

저울추 나란할 때 무게가 판가름 난다네.
근수(斤銖) 본디 정해져 인력으론 어렵고,
본체 바르니 어찌 쓰이지 않음을 근심하리.

저울대는 무게를 재는 기준이다. 따라서 무겁고 가벼운 것을 달아 보면 알 수 있다. 따라서 사람이 그 무게를 속이지 못한다. 저울추를 매달아 어떤 물건을 달면 저울대가 나란하게 된다. 사물의 근수가 이미 정해졌다. 그것은 곧 사람의 국량이 태어날 때부터 정하여졌다는 말이 된다. 도량이 넓은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도량이 넓고 마음이 바르다면 언젠가는 쓰인다. 그러니 구태여 쓰이지 않는다고 근심할 필요가 없다. 이 시도 비체(比體)이다. 자아가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저울대와 저울추와 같은 법도가 있다는 말이다. 이 법도로 사람의 도량을 판단할 수 있다. 그 근수(斤銖) 곧 사람의 도량은 타고난다.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구에서 보면, 자아는 본체가 바르다고 하였다. 마음의 본체가 바르다는 것은 정신이 항상 깨어있다[惺惺]는 말이다. 마음이 깨어있으면 잡념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잡념이 없으면 욕심이 없어진다. 욕심이 없으면 저절로 도에 접근하게 된다. 욕심이 없으면 기쁨이 많아진다. 곧 과욕(寡慾)이면 다행(多幸)이다.

이처럼 주자의 시에 화(和)·차운(次韻)한 시는 주자의 <관서유감> 시의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을 모두 수용하고 있다. 또 시인 나름대로 자신이 추구하는 진리를 함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시인들은 양직(養直) 도성유(都聖兪: 1571~1649),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 노애(蘆厓) 유도원(柳道源), 정조(正祖),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 1818~1886) 등이다. 이들은 모두 영남지방 출신 학자들이며, 퇴계학맥(退溪學脈)을 잇는 주리파(主理派) 학자(學者)들이다. 이는 퇴계(退溪)가 주자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곧 퇴계가 직

집 《주자대전》을 완독하였고, 주자의 편지를 추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들에게는 주자의 작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 그가 직접 이 <관서유감>시를 풀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관서유감>시를 수용하고 그 맥(脈)을 잇는 사람은 영남지방, 그것도 퇴계학맥과 직결된다. 조선(朝鮮)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또한 남인(南人) 계통이었기에 영남학맥과 깊은 관련이 있다.

3. 用事를 통한 語彙의 수용

<관서유감>시에 나오는 시어(詩語)들을 용사(用事)한 경우가 실제로 제목(題目)을 본뜨거나 화·차운(和次韻)한 시보다 훨씬 많다. 물론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도 주자의 시와는 다른 의미를 표출하는 시가 있다. 한편 주자의 시에 용사하여 주자의 그것과 비슷한 의미를 지닌 시도 있다. 먼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서 주자의 시에 용사한 실례(實例)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題目의 어휘(語彙)를 수용한 경우: 觀書(802)·有感(8392)·觀書有感(21)

둘째 첫수의 어휘를 수용한 경우: 半畝(586)·方塘(745)·一鑑(352)·鑑開(84)·天光(1015)·雲影(876)·天光雲影(143)·徘徊(4916)·共徘徊(184)·問渠(193)·那得(2044)·清如許(113)·爲有(5471)·源頭(1088)·活水(525)

셋째 둘째 수의 어휘를 수용한 경우: 昨夜(2591)·江邊(1400)·春水(1217)·蒙衝(18)·蒙衝(51)·巨艦(104)·一毛(508)·一毛輕(17)·向來(6278)·枉費(499)·推移(1042)·推移力(16)·此日(6430)·中流(2286)·自在(5887)·自在行(51)

위와 같이 우리나라 선비들은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단어를 용사(用事)하여 자신들의 시문(詩文)을 지었다. 물론 주자의 시에 나온다고 하여 주자만이 그 단어를 쓴 것이 아니다. 어떤 용어는 당시 시인들이 즐겨 쓰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사가(四佳)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의 <화중(和仲)의 시에 차운하여 매화를 읊음(詠梅 次和仲韻)²⁹⁾>이라는 시 함련(頷聯)의 “은은한 향 성긴 그림자 맑기가 이렇거니, 육안으로는 진면을 잘 볼 사람 없고말고[暗香疎影清如許, 肉眼無人仔細看]”은 송(宋) 나라 임포(林逋)의 <산자락의 작은 매화(山園小梅)>라는 시에 “성긴 그림자는 맑고 얇은 물 위에 비껴 있고, 은은한 향기는 황혼 달빛 아래 떠다니네.[疎影橫斜水清淺 暗香浮動月黃昏]”라고 한 구절에서 용사(用事)하였다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용사한 시 가운데는 철리적(哲理的)인 의미를 담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이 왕성하였을 때 시인들이 지은 시에서는 주자의 시에 나오는 단어 또는 구절을 용사하여 자신의 생각을 묘사하였다. 위의 예에서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실제로 주자의 시에서 용사하였다. 또 이들은 작품 안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생활 공간에서도 주자의 시에 나오는 시어(詩語)를 빌려 시 제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의 <천광운영대(天光雲影臺)³⁰⁾>라는 시가 그 예이다.

滄波凝澁寫天光
何似當年半畝塘
固是靜深含萬象
誰知溥博發源長

푸른 물결 맑게 여러 하늘빛이 비치니,
당시 작은 연못과 견주면 어떠한가.
진실로 고요하고 깊어 만상을 함축하니,
누라서 넓고 넓어 근원이 깊을 알리오.

29) 徐居正, 《四佳詩集》卷4.

30) 奇大升, 《高峯續集》卷1.

라 하여 시의 제목을 주자의 시 구절에서 따왔다. 자아는 맑은 물속에 하늘빛이 비치는 것을 주자의 시 반 이랑 반듯한 못과 대비하고 있다. 자신이 이름붙인 하늘빛과 구름이 비치는 대에 올라 그 아래 못에 비친 물결을 보고 주자의 시구를 용사하였다. 글자는 달라도 전구나 결구 모두 주자의 <관서유감>시와 그 의미가 비슷하다. 그만큼 자아의 머릿속에는 주자의 <관서유감>시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이 시에서는 단지 시구의 용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고봉(高峯)이 주자의 시구의 일부를 따와 대(臺)의 이름으로 삼았다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글로서만이 아니라 생활공간에도 주자의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고봉의 이 시뿐만 아니다. 선비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집 한 부분에 연못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방당(方塘)이라 한 곳이 경향(京鄕) 각지에서 보인다. 이 방당(方塘)을 응용하여 방지방도(方池方島)를 만들기도 하였는데 서울 경회루(慶會樓) 밑의 연못이나 이내번(李乃蕃)이 지었다고 하는 강릉(江陵)의 선교장(船橋莊) 안의 연못이 그것이다. 선교장 안에는 활래정(活來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1816년(순조 16)에 이근우(李根宇)가 중건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16세기 이후부터 조선이 망할 때까지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시어(詩語)를 집 이름이나 정자 또는 누각의 이름으로 붙인 경우가 여러 곳에서 보인다. 구체적인 작품을 들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다. 먼저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우연히 동강(東岡)의 지난 일이 생각나 위 시의 운을 따라 지어 자동(子東)에게 올림(偶感東岡舊事 疊韻奉子東)³¹⁾>이라는 시를 보면 다음과 같다.

叩策東岡淚墜鞍	말을 타고 동강 찾아가니 눈물이 뚝뚝,
長懷積雪立門寒	문밖에 흰 눈 쌓인 지난 일 생각나서.
先人有友應同傳	선친과 함께 열전(列傳)에 오르실 분이나,

31) 金昌協, 《農巖集》卷4(《韓國文集叢刊》161), p.369.

當世惟公不愛官	오직 공만이 벼슬에 연연하지 않으셨네.
講易林空書帶綠	《주역》강하던 숲엔 서대초만 푸르고,
觀心池古鑑雲團	마음 살피던 옛 못엔 구름이 비치네.
阮咸文彩隣相近	완함 문채가 숙부와 비슷한 게 좋아,
交誼憑尋伯仲歡	우정 서로 다지며 격의 없이 즐긴다네.

위 시를 언뜻 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용사(用事)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목에 두 사람의 동강(東岡)과 자동(子東)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는 곧 농암(農巖)이 소년 시절에 양주 동강에 사는 이해조(李海朝: 1660~1711)의 숙부인 이단상(李端相: 1628~1669) 문하에서 글을 읽었던 일과 그의 아버지가 이단상과 각별한 친분을 유지했던 일을 가리킨다.

문밖에 흰 눈이 쌓였다는 것은 송(宋)나라 양시(楊時)가 유초(游酢)와 함께 스승 정이(程頤)를 찾아갔을 때 정이가 마침 눈을 감고 앉아 있었다. 이들은 가지 않고 곁에 서서 스승이 정신이 들 때까지 기다렸는데, 정이가 정신이 들어 눈을 떴을 때는 문밖에 내린 눈이 한 자나 쌓였다고 한다.³²⁾ 흔히 스승을 존경하고 도를 중히 여긴다는 전고로 인용되는데, 여기서는 작자가 지난날 이단상 문하에서 수학한 일을 가리킨다.

돌아가신 아버님과 함께 열전에 오를 벗이라는 것은 송나라 왕안석(王安石)이 재상으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때 친자에게 여러 차례 바른말을 한 것으로 유명한 범진(范鎮)은 사마광(司馬光)과 일생 동안 두터운 우정을 유지하였다. 그가 사마광에게 말하기를 “그대와는 살아서는 뜻을 함께하고 죽어서는 전을 함께할 것이다.”³³⁾ 하였다. 중국의 기전체(紀傳體) 역사서에서는 성향이 같은 인물들끼리 한 열전(列傳)에 모아 엮으므로 한 말인바, 곧 김수항이 이단상과 뜻과 취향이 같았

32) 《宋史》卷428, 道學列傳, <楊時>.

33) “與子生同志, 死同傳.” 《緇衣集傳》卷3, <壹類章>.

다는 뜻이다.

경련(頸聯)의 출구(出句)에서, “《주역》을 강하던 숲엔 서대초만 푸르다”고 하였는데, 서대초(書帶草)는 한(漢)나라 정현(鄭玄)이 불기산(不其山) 기슭에서 후학을 가르칠 때 자라났다는 풀로, 줄기가 부추처럼 길고 질겨 책을 묶는 띠로 사용하였다 한다. 스승의 유적지를 말할 때 인용된다.

경련 대구(對句)의 “마음 살피던 옛 못엔 구름이 비치네.”라고 한 것이 주자의 <관서유감> 첫 번째 시의 내용을 용사(用事)한 것이다. 곧 그를 가르치던 이단상은 죽었으나 그가 평소에 보면서 마음의 실체를 살피던 맑은 못이 지금도 남아 있다는 뜻이다.

미연(尾聯)의 출구에서는 “완함(阮咸)의 문채가 숙부와 비슷한 게 좋다.”고 하였다. 완함은 진(晉)나라 때 명사 완적(阮籍)의 조카로 다 같이 죽림칠현(竹林七賢) 가운데 한 사람이다. 여기서는 이해조의 아름다운 기풍이 그의 숙부인 이단상과 닮았다는 뜻이다. 이처럼 이 시에서는 여러 차례 용사를 통하여 상대방을 치켜세우고 또 자신의 느낌을 묘사하고 있다. 경련의 대구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시대 선비들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 주위에 연못을 파서 자신이 잔잔한 연못의 물을 보고 자신의 마음의 살피려 하였다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동계(桐溪) 정운(鄭蘊: 1569~1641)의 <만월당(滿月堂)에 부쳐 줌(滿月堂寄詠)³⁴⁾>이라는 시에서도 이러한 모습이 보인다. 그의 시 2수 가운데 첫 번째 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半畝方塘滿月軒
面前光景豁龍門
一般清意人知少
八玩高風有是孫
鵬賦愁懷今橋海

반 이랑 반듯한 연못가의 만월헌이여,
확 트인 눈앞에는 용문산이 보이네.
이처럼 맑은 뜻 아는 사람 적으리니,
팔완당의 고향에 이런 손자 있었구려.
제주에 유배된 오늘 슬픔이 일어나고,

34) 鄭蘊, 《東溪續集》卷1(《韓國文集叢刊》75), p.300.

漁舟夢想舊桃源
何時放赦那邊去
共對明輝更倒樽

무릉도원 찾던 옛일 꿈속에서 생각하네.
어느 때나 풀려나 그곳으로 달려가서,
밝은 달빛 맞으며 함께 술잔 기울이리.

위 시에서 알 수 있듯이 자아는 시의 첫 구에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만월헌(滿月軒)이 있는 곁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는 말이다. 물론 이 연못은 자아의 마음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못이다. 이처럼 조선시대 시인들은 단순히 문학작품 속에서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활공간 속에서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시어들은 활용하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 시인들이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어휘(語彙)를 빌려 쓴 경우가 대단히 많다. 이것은 그만큼 그들의 머릿속에 이 시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16세기 이후의 작품에서 주자의 이 시에 용사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용사(用事)를 통한 <관서유감>시에 나오는 어휘(語彙)를 수용한 경우이다. 첫째는 제목을 수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제1수(首)의 어휘를 용사한 경우, 셋째는 제2수(首)의 어휘를 용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시인들이 주자의 시에 나오는 어휘를 수용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시인들이 주자의 작품을 접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주자대전(朱子大全)》·《주자어류(朱子語類)》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15~17세기에 살다간 선비들은 주자가 남긴 글들을 깊이 있게 읽었다. 주자의 글 가운데 어떤 이는 철학 쪽을 주로 공부하였고, 어떤 이는 문학 쪽을, 또 어떤 이는 이 두 분야를 망라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선비들은 문학과 철학을 아울렀기에 주자의 시의 철리적인 면을 계승하려 하였다. 그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자의 시에 나오는 말을 용사한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이었다. 또 그들의 시에 철리적(哲理的)인 의미(意味)를 함축(含蓄)하고 있다. 이들은 자

신들의 작품에서만만 아니라 생활공간의 이름도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시어를 빌려 쓰고 있다. 이는 그만큼 주자의 이 <관서유감>시가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IV. 맺음말

본고는 주자(朱子)의 <관서유감(觀書有感)>시가 우리나라 시인들에게 어떻게 수용되었는가를 고찰한 논문이다. 이 <관서유감>시가 고려 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수용되었다. 특히 16세기 이후 주리파(主理派)들에 의하여 이 시가 다시 주목받았다.

퇴계(退溪)의 문집(文集)을 고증(考證)한 유도원(柳道源: 1721~1791)은 퇴계의 이 <관서유감>구절의 풀이를 소개하고 있다. <관서유감>시의 시구를 처음 풀이한 사람은 바로 퇴계 이항이다. **그 뒤를 이어 신정모(申正模)·김상진(金相進11)·정조(正祖)·곽종석(郭鍾錫) 등이 나뉘며 대로 이 시를 풀이하고 있다.** 이 시를 풀이한 사람으로 정조와 김상진을 제외하면 모두 경상도(慶尙道) 사람이다. 이들은 곧 퇴계의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다.

우리나라 학자들이 <관서유감>시를 수용한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관서유감’이라는 제목을 수용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주자의 <관서유감>시와는 그 내용이 많이 다르다. 주자의 시에 화운(和韻) 또는 차운(次韻)하지 않았고 형식도 5언 또는 7언, 절구 또는 율시로 다양하다. 이러한 제목의 시가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김룡(金隆)·정석달(鄭碩達)·권상일(權相一)·정충필(鄭忠弼)·김진수(金進洙)·조병덕(趙秉憲)으로 이들 역시 대부분 영남지방 출신 학자들이다.

둘째 화(和)·차운(次韻)을 통한 형식(形式)과 내용(內容)의 수용이다. 이에 해당하는 시인들은 모두 주자의 <관서유감>시의 형식과 내용을

많이 수용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시인들은 도성유(都聖兪)·권상일(權相一)·유도원(柳道源)·정조(正祖)·이진상(李震相) 등이다. 이들은 모두 영남지방 출신 학자들이며, 퇴계학맥(退溪學脈)을 잇는 주리파(主理派) 학자(學者)들이다. 이는 퇴계(退溪)가 주자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곧 퇴계가 직접 《주자대전》을 완독하였고, 주자의 편지를 추려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만들기도 하였다. 그의 제자들에게는 주자의 작품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고, 그가 직접 이 <관서유감>시를 풀이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관서유감>시를 수용하고 그 맥(脈)을 잇는 사람은 영남지방, 그것도 퇴계학맥과 직결된다. 조선(朝鮮) 22대 임금인 정조(正祖) 또한 남인(南人)과 친하였기에 퇴계학맥과 깊은 관련이 있다.

셋째 용사(用事)를 통한 <관서유감>시에 나오는 어휘(語彙)를 수용한 경우이다. 조선 시대 시인들이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어휘(語彙)를 빌려 쓴 경우가 대단히 많다. 첫째는 제목을 수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제1수(首)의 어휘를 용사한 경우, 셋째는 제2수(首)의 어휘를 용사한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지역에 관계없이 많은 시인들이 주자의 시에 나오는 어휘를 수용하고 있다. 그 내용이 비슷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자의 시에 나오는 어휘를 용사한 사람들은 성리학자들이었고, 또 그들의 시에 철리적(哲理的)인 의미(意味)를 함축(含蓄)하고 있다. 이는 그들의 머릿속에 이 시가 그만큼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16세기 이후의 작품에서 주자의 이 시에 용사한 경우가 많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본격적으로 유행한 것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작품에서뿐만 아니라 생활공간, 곧 당재(堂齋)·서당(書堂)·누정(樓亭) 등의 이름도 주자의 <관서유감>에 나오는 시어를 빌려 쓰고 있다. 이는 그만큼 주자의 이 <관서유감> 시가 조선 시대 선비들의 의식 속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이상으로 본고를 마치기로 한다. 본고에서는 퇴계학맥에서 이 시를

중시한 것이 철학적으로 어떻게 맥을 잇고 있는가에 대한 것과 작품의 구체적인 분석은 원고 분량이 많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점은 이후 보완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 朱 熹, 《朱子大全》(大田: 學民文化社 影印本, 2004.9.)
徐居正, 《四佳詩集》(《韓國文集叢刊》10)
奇大升, 《高峯集》(《韓國文集叢刊》40)
柳道源, 《蘆厓集》(《韓國文集叢刊》238)
申正模, 《二恥齋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續70)
李象靖, 《大山集》(《韓國文集叢刊》226)
正 祖, 《弘齋全書》(《韓國文集叢刊》262, 267)
郭鍾錫, 《侁宇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341)
金 隆, 《勿巖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38)
崔 岵, 《簡易文集》(《韓國文集叢刊》49)
鄭 蘊, 《東溪續集》(《韓國文集叢刊》75)
金昌協, 《農巖集》(《韓國文集叢刊》161)
鄭碩達, 《涵溪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續53)
權相一, 《清臺先生文集》卷3(《韓國文集叢刊》續61)
鄭忠弼, 《魯宇文集》卷2(《韓國文集叢刊》續89)
金進洙, 《蓮坡詩鈔》(《韓國文集叢刊》306)
趙秉憲, 《肅齋集》(《韓國文集叢刊》311)
都聖俞, 《養直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續17)
李震相, 《寒洲先生文集》(《韓國文集叢刊》317)
李九義, 朝鮮時代 詩人과 詩精神, 서울: 지성人, 2013.3.
鄭景柱, <朝鮮初期 感興詩의 文明과 眞樂>, 《東洋漢文學研究》24, 東

洋漢文學會, 2007, pp.111-131.

李九義, <藍溪 表沿沫의 ‘삼가 주자의 감흥 시에 차운함(次朱子感興)’
詩攷>, 《尚州文化研究》18, 尚州文化研究所, 2008.12. pp.147
-167, 外 多數.

※ 이 論文은 2014年 3月 15日 投稿 完了되어 2014年 4月 15日까지
審査委員들이 審査하고, 2014年 4月 20日까지 審査委員 및 編輯委
員會議에서 揭載로 判定되었습니다.

A study on how Korean's poets accepted Juja's “Felts after reading”

Lee, Kueui
(Kyeungpook National Univ.)

< Abstract >

This script is considered about how Korea's poets accepted *Juja's* <*Felts after reading*>. It was exported to Korea and started to be accepted from end of Korea era. Especially got attention again by members of a Confucian school of definite view of reason after 16c. *Toegye Lee, Hwang* was first person who gave the meaning to <*Felts after reading*>'s phrase. After *ShinJeungmo, KimSangjin, Jungjo, Kwak Jongseok* translated the poem in their own way. To look at these peoples, except *Jungjo* and *KimSangjin*, they come from *Kyeungsang* region, were influenced by *Toegye*. <*Felts after reading*>'s aspect of acceptance can divide into 3 ways. First of all, receive the title <*Felts after reading*>. In this case, content is different from *Juja's* <*Felts after reading*>.

Didn't compose a rhyme in response, form is various, such as 5 or 7 alphabets in 1 line of verse, phrase or style of Chinese poetry. This kind of title was appeared end of 16c. Who come under this tendency were mostly from *Youngnam* region's scholars.

Secondly, acceptance of form and content by sum, having a loan of meter. Every poets who's related, accepted much *Juja's* <*Felts after reading*>'s form, contents. All these people are scholars from *Youngnam* region. Followers of a Confucian school of definite assertion of reason,

which is generation of *Toegye's* study line. This means no difference from *Toegye* was interested in *Juja's*. Can say *Toegye* was interested in *Juja's*.

Toegye completely read <*The complete book of Juja*(朱子大全)> by himself, selected *Juja's* letter and made <*The essentials of Juja's letter*(朱子書節要)>.

As this reason, who accepted, inherited <*Felts after reading*>, directly connect to *Youngnam* region, especially *Toegye* line. *Jungjo*, who was 22nd king of *Chosen*, also has deep connection with *Toegye's* line, because he liked the school of south. Thirdly, inherited lexical in poet through quotation of old history. In this case, many poets from *Chosen* era borrowed lexical from *Juja's* poem.

Here are the cases. Firstly, inherited title. Secondly, quote the lexical from the first poem. Thirdly, quoted vocabulary from the second piece. This case there is no correlation with region, many poets accepted lexical from *Juja's* poet. Especially, after 16c, many poems using of an event of the remote past from *Juja's*.

Moreover, they borrowed lexical from <*Felts after reading*> not only poem but also name of living space. This means the poem from *Juja's* is rooted deeply in *Chosen's* erudite people's consciousness.

Subject Words : <*Felts after reading*>(觀書有感), a Confucian school of idealist philosophy(理學家), Accept(受容), Fashion(流行), Life space(生活空間), Consciousness(意識)